

보도 일시	2022. 3. 3.(목) 15:00	배포 일시	2022. 3. 3.(목) 15:00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미 (044-203-2611)
		담당자	서기관 전수련 (044-203-2631)

민관 협업으로 새로운 지역문화 발전 모델 논의

- 3. 3. 문체부 장관,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 자문기획단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3월 3일(목), 지역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의 자문기획단을 만나 새로운 지역 문화발전 모델을 논의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수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최초로 넘어서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도 필요하지만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접근성이 낮고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문화로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정주 여건 개선-인구 유입 및 체류 인구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지역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민·지자체·민간전문가가 함께 문화 시설·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문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기획단은 문화 일반, 지역문화, 공간재생, 음악, 미술, 무용 등 분야별로 구성했다. 앞으로 전문성과 연계망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 전반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이 문화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자문기획단과 함께 새로운 지역문화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높이고 어려움을 겪는 마을이 살고 싶은 마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